

117. 나의 신부들아, 나의 웃는 얼굴을 보아라!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

2015.08.27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하트드웰러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소중한 치유 메시지로 저희들을 축복하세요.

제가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크 버클러(Mark Virkler)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프로토콜, 혹은 동일한 형식을 따라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전통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일기를 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들은 첫번째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 방법과 성경을 통해서 레마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밤에 주님께 저의 마음을 쏟아 부었어요. 저는 주님께 가서 앉았고, 즉시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빠르게 답해 주셨고, 기쁨부음은 정말 부드럽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어젯 밤에 다시 일어났었고 저는 눈치 챘어요. 보통 주님께서 찬양 중에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앉아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주님께 제 마음을 쏟아 부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30년전 제가 했던 방식을 정말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제 주변에 일종의 비탄의 장막 또는 천막이 제 주위를 덮은 것 같았어요. 제가 무가치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에 정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적들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악마들은 저희가 저희의 잘못들과 저희 자신의 잘못된 점들에 집중하게 하여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저는 다른 곳들에서도 이것을 말했었어요.

이제 제가 주님과 했던 대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게요..

주님,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제가 너무 더럽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느끼고 비탄으로 구겨져서 주님께 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저를 달래셔서 제가 제 자신에게서 나와 주님께 들어가게 해야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서도 여전히 제 자신에 대하여 너무 나쁘게 느껴요.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저를 자유롭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한숨소리를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왜 저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세요? 저는 주님께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너가 나에게서 눈을 떼고 너자신에게로 눈을 돌릴때, 너는 너의 집중을 잃게 되. 너는 나의 웃는 얼굴을 보는 대신에 빈 공간을 바라봐. 나는 너의 인정받는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하루를 너와 함께해. 하루 종일! 나는 너가 나를 알아차리기를 바라지만 너의 마음은 세상을 다루기 위해 나로부터 분리되어져. 그런 다음 이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악마들은 엄청난 양의 비난으로 너에게 퍼붓기 시작해.

악마들은 이렇게 말해 “저기봐! 그녀가 다른 일들로 바빠서 그에게서 눈을 떼었어. 가서 그녀를 잡아!”

너가 내안에서 완전히 몰두할 때 악마들에게는 들어갈 입구가 없어. 하지만 너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너는 악마들의 억압과 거짓말에 열린 문이 되어져.

(클레어) 하지만 주님, 제가 세상을 다룰 때 어떻게 주님에게 제 눈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사랑아 너는 나와 동행해. 좀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어.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사소한 일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이 억압의 문을 여는 것은 나에 대한 너의 집중의 부족이야.

(클레어) 주님,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인가요?

(예수님) 말하자면 그래. 너가 이것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어떻게 이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배운 적이 없어.

(클레어) 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습관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너무 좌절하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득되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슬프게도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제가 진정으로 주님과 연결되었을때에는 믿어요. 하지만 다른 때에 저는 주님과 정말 멀다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 너가 세상과 가까워졌을 때 너를 빠지게 만드는 함정은 어디에나 놓여있어. 이것들을 피하려면 진정한 은혜가 필요해. 내사랑아, 이것이 너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야. 너는 이것을 너 스스로의 훈련으로는 얻을 수 없어. 너가 나에게 너무나 사랑에 빠져 한순간도 나에게서 멀어질 수 없을 때 너는 바로 그곳에서 나를 가질 거야. 너의 바로 옆에.

(클레어) 주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수님) 그래, 내 사랑아. 너의 바로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어.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너의 아름다움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집중하지 않아. 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알아? 물론 모르겠지. 너는 여전히 내가 부를 너에 대한 너 자신의 인식에 갇혀 있어. '추한' 너 라는 인식에. 땅속 구멍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소녀처럼: 더럽고, 험클어지고, 외롭고, 버려진. 그래, 이것들이 너가 너 자신에 대해 너무 급하게 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우는 것을 너가 여러 번 본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는 것과 같이 너가 너 자신을 보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클레어) 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고나서는 말했어요.
오, 주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것이예요.

(예수님) 맞아! 이것은 나의 구원과 정의에 붙잡힌 너가 아니라 과거의 너야. 내가 너를 보는 것처럼 너 자신이 너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아. 나도 동의해. 영원히 살 수 없는 너가 너에게 부여되고 너에게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광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워. 정말로 매우 어려워. 나는 가끔 너에게 꿈에서 보여줘. 너가 날 수 있을때, 여전히 죄와 죽음의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벗어났을때. 이것이 그 꿈들의 의미야. 너는 더 이상 소멸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아니고,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며 육체의 속박에서 구원 받았어. 그것이 진정한 너야.

(클레어) 오 주님, 제가 매일 이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것은 간단해. 나에게 집중을 유지해. 나를 바라봐. 나는 미소 짓고 있어. 그것이 너가 나에게 누구인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거야.

(클레어) 이때 저는 에스겔의 노래 중에서 한 노래의 한 구절을 들었어요. 저와 에스겔 둘이 함께 만든 첫번째 노래인 '솔로몬의 노래'요. 아가에서 한 구절을 들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당신은 아름다워요. 오 당신은 아름다워요.'

(예수님) 그래,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아가의 안에서 살아. 그래, 그것이 나의 마음이야. 너가 지구로부터 해방될 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어. 너가 이미 얻은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일으킨 것과 같은 능력으로 너의 육신에서도 성취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신성한 연합의 이 장엄한 공간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질 거야. 그러면 과거가 더 이상 너의 길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을 거야. 아니, 자비와 사랑으로 과거는 소멸될 거야. 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너의 꿈쩍한 과거를 완전히 녹여 버릴 것이며 더 이상 다시 발견되지 않을 거야. 너가 좋아하는 말인 '보혈 아래에서.'

음, 심지어 너는 지금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어. 얼마나 슬픈지.. 클레어, 이리와. 제발 내 말을 붙잡아줘. 너의 마음에 그 말들을 붙잡아라. 그 말들이 너 자신에 대해 비참하게 보는 것을 고칠수 있게 해라. 변화될 몸을 보아라! 더 이상 썩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 있으며 날아올라가! 그래, 그게 내가 너를 보는 방식이야.. 나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신부. 과거의 그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한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에 있어. 내가 너와 춤을 추는 것을 너가 볼 때 모든게 추하고 더러워?

(클레어) 아니요.

(예수님) 너와 내가 춤을 추는 것을 너가 볼 때, 너는 진짜의 너를 보는 거야.

(클레어) 오 주님. 그것을 어떻게든지 알고 있지만 단지 그것을 제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연습은 완벽함을 만들어! 나의 사랑아 지금 오거라. 너의 주인의 기쁨으로 들어와라. 나는 너의 모든 노력에 완전히 행복하고 만족해. 나는 그 노력들에 성공으로 왕관을 씌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아. 너는 단지 너와 나에게 집중하는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거야.

(클레어) 네, 주님, 전 그것을 원해요. 제발 그 은혜를 제가 가질 수 있을 까요?

(예수님) 그것이 내가 기다렸던 말이야. 이제 이 선물을 유지하는데 몇 가지 비밀을 알려줄 거야. 아침에 제일 먼저 나에게 오거라. 너와 너 안에 나의 임재를 확립해라. 너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는 첫 시간에 내가 너에게 인사할 때 나의 웃는 얼굴을 보아라. 그 미소를 소중히 간직해라. 나의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너의 마음안에 숨겨라. 너의 품에 꼭 껴안고 그것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다음 가끔 너가 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를 통해 살도록 나에게 요청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라.

하루가 진행됨에 따라 기복이 있을 거야. 너의 평화를 파괴하고 이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 위해 보내어진 악마들이 있을 거야. 악마들이 성공한다면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미소를 다시 보거라. 클레어, 너의 손을 뺀어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어라. 오, 나의 임재가 너와 얼마나 많이 함께 하는지를 너가 보기를 원해. 나는 잠시도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 심지어 단 몇 초라도. 알겠어?

(클레어) 주님, 그것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겠어요?

(예수님) 내 사랑아, 너 자신이 메모해라. 너가 어떤지 너는 잘 알아.

그리고 나의 신부들아, 너희 모두에게 말해. 이 똑같은 방법을 따라라. 이 방법들로 너희들이 나를 찾았을때 너희들에대한 나의 확인을 주는지 주지않는지, 나를 새롭게 인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기름 붓는지 붓지 않는지를 보아라. 이 방법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는 너가 악마들이 너희 주위를 돌아다니게 만든 그 두꺼운 비탄의 고치를 깨뜨릴 것이야.

나는 너희 각각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춰. 이제 가서 나의 뜻을 행하여라.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나의 신부들아 나의 시선으로 돌아와라.